

SM11) 수도권지역의 장기간 고농도 오존 경향 분석

Trends of Long-Term High Concentrations Ozone in Seoul Metropolitan Area.

마참민 · 진형아 · 박철진 · 한진석 · 최양일
 국립환경연구원 대기연구부

1. 서론

광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오존은 전구물질(precursor)의 발생지역 뿐만아니라 바람에 따라 수송(transport)되어 오염원이 없는 외곽지역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지역적 규모(regional scale) 이상의 수평적인 오존 수송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오존오염은 국지적 현상과 수송에 의한 복합적인 오염현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수도권지역은 오존 및 전구물질의 유·출입이 발생하며, 서풍일 경우 인천, 서울, 구리, 춘천까지 시간대별로 고농도의 오존이 관측되기도 한다. 이렇게 풍향에 따라 지역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오존의 수평적인 농도 분포를 장기적으로 파악하여, 수도권 지역에서 나타나는 오존의 고농도 현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본론

1999년 전국의 환경기준 오염물질 초과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총 2,340회의 초과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이중 오존의 1시간기준 초과가 728회, 8시간기준 초과가 1,019회 발생하여 전체 초과사례의 74.6%가 오존으로 나타났으며, 1시간기준 초과 728회중 82.3%(599회), 8시간기준 초과 1,019중 46.7%(476회)가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수도권지역에서 1990부터 1999년까지 지속적인 자료확보가 가능한 측정소(총 34개)를 대상으로 지역적인 농도 분포 특성 및 기상요인을 조건별로 분류하여 수도권지역의 오존 고농도 분포 경향을 파악하였다.

Table 1. Distributions of high concentration 1-hr ozone($\geq 80\text{ppb}$) between 1990 and 1999 in Greater Seoul Area.

year area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Seoul	303 (48)	601 (57)	413 (49)	364 (51)	772 (59)	259 (27)	893 (72)	963 (74)	795 (56)	1063 (95)
Incheon	1 (1)	64 (19)	8 (7)	14 (6)	37 (14)	0 (0)	7 (4)	15 (7)	46 (14)	145 (27)
Kyunggi	64 (25)	359 (62)	52 (28)	112 (40)	467 (79)	55 (24)	210 (61)	460 (50)	259 (41)	627 (90)

() : number of days

Table 2. Distributions of high concentration 8-hr ozone($\geq 50\text{ppb}$) between 1990 and 1999 in Greater Seoul Area.

year area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Seoul	158 (80)	199 (58)	228 (85)	94 (38)	260 (52)	131 (37)	333 (90)	407 (90)	326 (77)	519 (104)
Incheon	0 (0)	44 (28)	3 (3)	2 (2)	17 (13)	2 (2)	2 (1)	42 (19)	26 (18)	77 (32)
Kuynggi	18 (15)	134 (66)	107 (89)	30 (21)	149 (60)	55 (37)	99 (61)	194 (58)	149 (52)	296 (84)

() : number of days